주체90년

한민전 10대뉴스














6.15주간 편집부

1.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고 정주영씨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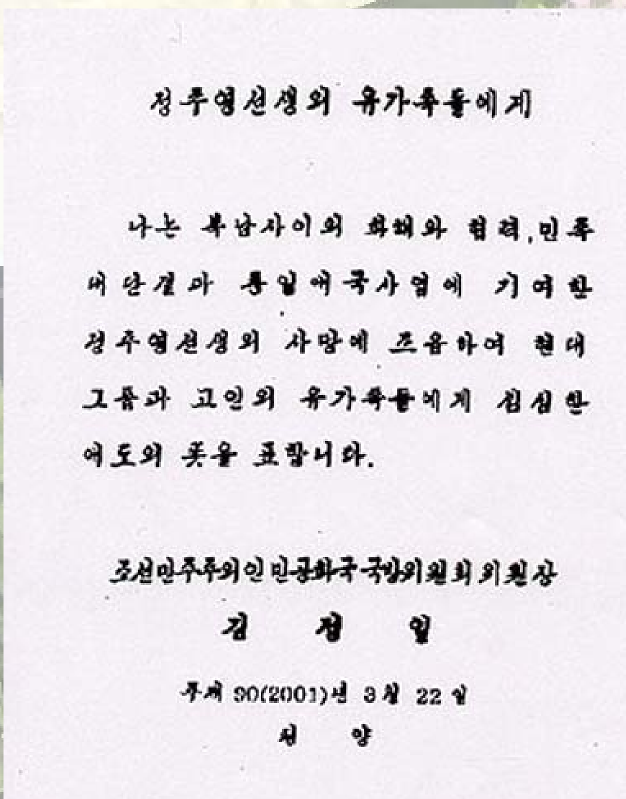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3월 24일 정주영 전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오신 화환을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대표단이 고인의 영전에 헌정했습니다.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정주영씨의 사망과 관련해 하신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족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조전을 보내주시고 조의대표단까지 파견해 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씨에게 베푸신 친어버이의 사랑은 전체기업인들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게 하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통일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정주영선생의 유가족들에게

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사업에 기여한 정주영선생의 사망에 즈음하여 현대그룹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 90(2001)년 3월 22일
평 양





2.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연자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4월 11일 함남 함흥시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초청된 가수 김연자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공연이 끝난뒤 꽃바구니를 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김연자일행을 접견하시고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연자씨에게 평양으로 오고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큰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연자씨에게 베푸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는 한국연예인들을 비롯한 각계민중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그들속에서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을 더욱 높이게 했습니다.

3. 남북노동자대회와 남북농민대회진행

5월 1일 금강산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통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남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등 1,000여명이 참가해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강산에서는 또 7월 18일과 7월 19일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도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금강산에서 통일대회들을 진행한 것은 분단이후 처음 있은 민족사적 쾌거로서 조국통일운동에 노동자, 농민들이 주력군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 민족통일대토론회 진행

6월 15일 금강산에서 6.15남북공동선언발표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통일열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평양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 거행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거행되었습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는 남측에서만도 220여개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축전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벌여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것을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만경대방명록 등을 문제삼아 일부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겨레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우리 겨레의 굳센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한 대회였으며 역사에 기록될 민족적 대회합이었습니다.



6.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 친척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고 50여년 세월 쌓이고 쌓인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이남에 있는 가족, 친척들은 월북한 사람들이 간부, 과학자, 작가 등으로 자라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또 평양에 가서 가족, 친척들을 만난 월남자들은 북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금치못해 했습니다.

방문단 성원들과 가족, 친척들은 만남의 기회를 또다시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의 광폭정치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7.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성사와 6차 회담 결렬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을 구실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등 6.15공동선언정신에 배치되는 반민족적행위를 해서 이산가족방문단 등 5차 회담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5차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6차 회담이 11월 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렸으나 남측이 실무자급에서 합의한 문안들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6차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하는 당국의 반북책동으로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을 원하고 누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8. 대규모 전국민중대회

1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쌀수입개방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영 · 호남지역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대표 등 3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참가자들은 반민중, 반민주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들이 단결해야만 생존권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주범은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반민주,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함으로서 민주민권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국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9.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반대투쟁

지난 4월 9일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반대와 요격미사일시험규탄, 미국무장관 방한반대, 미군기지반환, 미군주둔비증액과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 등을 주장하며 용산미군기지앞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완강하게 벌여왔습니다.

특히 공대위관계자 400여명은 7월 27일 미국무장관 파월의 방한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전국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는 세계 제1의 깡패국가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저지했습니다.

올들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일대타격으로 됩니다.





10. 일본총리 고이즈미방한반대투쟁

10월 15일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강력히 진행되였습니다.

범민련남측본부와 한총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 정당, 단체들은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맞춰 전국곳곳에서 반일집회를 열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고이즈미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군국주의부활 등을 규탄하며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의 강력한 반일투쟁에 질겁한 고이즈미는 국회방문일정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빼소니쳤습니다.

고이즈미는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날아들었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받고 쫓겨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